

서 내리위쳐 있고 옆자락의 衣紋은 大膽한 手法으로 몇자락이 젖혀지면 서 寶座의 下部에까지 내려져 있다. 오른편 무릎을 덮은 衣紋은 裙衣자락에 이어져 「之」字形을 그리며 蓮花를 밟고 있는 발목을 감싸고 있으며 옆자락의 衣紋도 寫實的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正面과 兩側에는 雍渾 強靱한 옷주름이 나타나 있으나 뒤로 갈수록 漸次略式化되어 背面에는 何等의 彫飾이 없고 다만 光背孔으로 보이는 經四、길이 四cm의 圓孔이 三分之二쯤 되는 上部에 있을 뿐이다. 臺座로 고였던 痕跡도 없을 뿐더러 底面이 長方形 그대로여서 一石으로 遊戲坐 ②를 彫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實測値는(單位cm)

現高三九 肩幅二五 胸幅一二 膝幅二八

로서 全體의 肉體의 表現을 減하고 法衣의 表現을 強調한 느낌을 준다.

二、石佛坐像

亦是 頭部가 缺損되어 있고 左手의 指端과 膝部에 若干의 磨滅이 있는 現高一八 膝幅一九 胸幅一二cm의 花崗石 小像이다. 肩胸部와 兩手が 豐滿한데 左手는 膝部 中央에서 좀 左側으로 내려뜨려 內掌을 하고 右手는 팔꿈치를 굽혀 臍前에 뭉치고 指端을 좀 오무린듯한데 內掌한 손목에는 念珠를 걸치고 있는.

通肩의 袈裟를 입고 그 위에 法衣를 메고 있으며(왼편 어깨에서 二條의 紐帶가 바른편 허리에 이르고 가슴에는 結帶가 보인다) 數條의 옷주름이 兩手를 거쳐 兩膝을 덮고 있으며 後面에도 線刻으로 뚜렷이 衣紋을 나타내어 法衣의 表現에 心慮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興味있는 것은 兩膝 中央部의 突出部分이다. 衣紋으로 가리워져서 발가짐을 알 수 없으나 발을 무릎위에 얹은 形態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狀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前記 遊戲坐의 例와 같이 이것도 安座像이라고 볼이 妥當하며 遊戲坐의 彫成과 같은 意圖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이 외에도 거이같은 크기와 모양의 小座佛 六點이 있는데 한결같이 頭部가 破損되어 있다 아마도 毀佛에서 온 計劃의인 橫暴가 아닌가 생각된다.

以上 概略을 적은바와 같이 大膽한 衣紋의 處理라던가 堂堂한 蓮瓣、豐滿한 手足 등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그 彫成時期는 麗代中葉以後로 下降하지는 않을듯하다. 遊戲坐의 발가짐이 흔히 볼 수 있는 半跏像의 그것과 正反對라던가 또 安座像의 발가짐이 格에서 벗어난것 등은 密敎系統의 破格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密敎盛行이 麗初에서 中期 前後였으니 이와 手法을 견주어 보아도 그 彫成時期가 符合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安座像이 遊戲坐보다 時期가 多少올라가리라고 보이기 는 하지만 大體로 麗初의 作으로 보아 可할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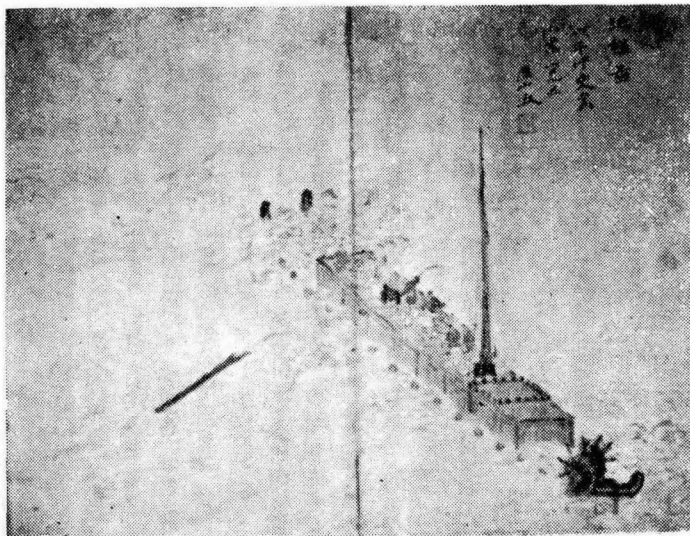
註

- ① 一名 窟岩寺라고도 하며 龍과 窟에 對한 갖가지 傳說이 있으나 文獻上의 記錄은 없다. 寺境 오른쪽에 麗代一般型으로 보이는 倒壞된 小塔一基가 있고 寺境은 大雄殿과 僧房一棟으로 된 조그만 規模이다. 僧房後側에는 幅二·五、高二、長五m餘의 窟과 幅一高一·五 長三m餘의 細長한 自然窟이 이어져 있으며 奥部에는 洞孔이 뚫려져 있다. 이 上下窟內에 數基의 石佛이 놓여 있는데 여기서 는 中 特히 注目되는 二點만을 擇하였다.
- ② 慶北月城郡 祇林寺에 傳해 내려오는 遊戲坐인 乾漆佛(寶物 四百十五號로 最近에 指定되었음을 들 수 있다. 中央部에 뭉은 발가짐 이 이와 同一하다.

劉淑의 泛槎圖卷

崔 淳 雨

泛槎圖卷이라고 이름붙은 全二十九丁으로 된 小畫帖 하나가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원래 一九一七년에 사드린 것으로서 題箋에 「泛槎圖卷 姜晉喜署 孝里山房莊」이라 한 것으로 보아 高宗 純祖朝의 畫家 姜璉熙의 舊藏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初丁에 泛查圖라는 題銘이 있고 다음丁에 「泛槎圖 戊午 仲槎爲小棠一兄 嬰惠山淑」이라 題款한 水墨 淡彩로 된 海上難破圖한장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第三丁에 說明된 小



각에 달려있는 질박한 장면이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朝鮮人이고 黑衣를 입고 서있는 사람들이 日本人들이란 것은 題跋下の 「日本人 藤楞本 慮其危 拔所佩刀截兩橋」이라는 句節로 보아 짐작이 간다고 하겠다. 즉 이 그림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긴칼을 빼어들고 돛대를 후려치는 동작이 그려졌고 부러진 돛대 하나가 이제 막 파도위에 떨어지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는 것이다. 危急한 事態에 부닥쳐서 도 然自若하는 흰옷입은 사람들의 姿勢가 船橋위에 잘 表現되어 있어서 어떤가 모르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棠의 題跋로 보아 小棠金夷準의 父金繼運이 哲宗六年(一八五五)二月 日本國 關伯의 襲位를 祝賀하기 爲한 使節로서 日本에 갔다가 歸國하는길 洋上에서 暴風을 만나 朝鮮人 七十一名과 日本人 八名을 태운 巨船이 難破에 直面해서 漂流하고 있는 情況을 그린 것이다. 이제 船體의 大部分이 浸水되었고 겨우 남아 있는 船橋위에 船客들이 待避해서 혹은 앉아 있고 혹은 쓰러진 채 모두의 운명이 경

어팠든 비록 小品이기는 하지만 蕙山 劉淑의 作家的 力量이 그 簡枯한 文氣와 함께 잘 發揮된 作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는 그 후 漂流五晝夜동안 겨우 남은 목숨들이 배와 함께 蔚山 鮐魚津에 標着해서 救助되었고 小棠은 그의 父가 겪은 이 海難을 紀念하기 爲하여 哲宗九年(一八五八)에 劉淑에게 請해서 그날의 情況을 그리게 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이 畫幅의 넓이는 三〇·二cm 높이는 二五cm 畫帖의 크기는 二五cm × 一五·三cm이며 小棠自身の 題跋을 筆頭로 해서 藕船李尙迪 石南 尹東龜 袁世凱 山本正義等 內外人士 數十人의 題跋이 이 그림에 連續되어 있다.

清原郡 靈下里 石像

李 殷 昌

忠北線 內秀驛 앞으로 흐르는 河川을 따라 東行하기를 約四km 地點이 上流溪谷인 清原郡北三面靈下里 塔山洞이 나서고 部落 民家 사이에 逸名寺址가 있다. 寺址에는 다만 瓦片和 石片이 散在하여 있을 뿐인데 이 곳 卞相俊氏집 안마당에 集群된 石像들이 있으며 다시 約二〇m 南쪽에 石塔(誌)이 있다. 石像과 石塔은 破壞가甚하나 아직 남아있는 彫刻을 通하여 그 精巧를 다한 優作임을 推測할 수 있는데 이미 缺失된 石像도 많은 것 같고 現存하는 石像도 原位置를 變更하였고 破損이 많으나 參考가 될만한 것이기에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一、石造如來座像

諸石像의 中央에 位置한 花崗石製인 바 臺座와 光背가 具存하는 座像이다.

像은 素髮로 肉髻가 높고 兩耳가 길며 耳朶가 兩어깨까지 드리워 있다. 顔部는 兩眉、兩眼、鼻梁、口唇等을 完全 喪失하여 그 相好